

바다, 섬, 항구, 그리고 방언*

한성우**

- I. 들어가는 말
- II. 섬과 방언의 단절
- III. 뱃길과 방언의 도약
- IV. 항구와 방언의 융합
- V. 나오는 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인천과 인천 근해의 섬의 말에 나타나는 방언의 단절, 도약, 융합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은 근대 이후 개항을 통해 성장한 대도시이며 인근의 강화도, 교동도, 덕적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국어의 대방언구획에 따르면 중부방언에 속하며 언어적으로도 중부방언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뱃길로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의 말이 뒤섞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지역이라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말이 나타난다. 이러한 독특한 말은 각 지역 말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다에 의한 언어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로막혀 있지만 항구와 항구를 잇는 뱃길이 열려 있어 이 뱃길을 통해 다채로운 방언의 도약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도약된 방언은 각 지역의 본래의 말과 융합된다. 바다는 방언의 전파를 가로막지만 방언 전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일반교수연구비 지원(과제번호 50330)에 의한 결과물임.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파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내는 길이기도 한다.

주제어 : 방언, 바다, 섬, 항구, 단절, 도약, 융합.

I. 들어가는 말

바다가 있어야 섬과 항구가 있지만 바다가 있으면 방언은 없다. 물로 둘러싸여야 섬이고 물길로 이어져 있어야 항구다. 민물도 물이지만 바닷물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섬과 항구는 바닷물로 둘러싸여야 하고 그 위의 길로 이어져야 제격이다. 그러나 바다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 말도 없다. 말이 없으니 방언도 당연히 없다. 방언은 보다 큰 단위의 개별 언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개별 언어의 연속체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연속이 단절되었으니 바다가 있으면 방언은 없는 것이다.¹⁾

방언의 전파는 파도에 비유된다. 어디선가 개신(改新)이 일어나면 그것은 물위의 동심원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개신의 파도, 즉 개신파(改新波)는 점점 퍼져 나가면서 개신지역을 넓히며 잔재지역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전이지역을 끊임없이 만든다. 그러나 산, 강 등의 자연적 장애물이 있으면 그 파도는 더뎈다. 바다는 가장 큰 장애물이어서 파도의 진행이 아예 멈추기도 한다. 파도의 본고향인 바다에서 방언의 파도가 멈추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있으면 언어가 있고, 그 언어가 어떤 모습이든 모두 한 언어의 방언이다. 섬에도 사람이 살고, 항구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걸어서는 못 가더라도 배로 닿을 수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은 항구를 통해 드나든다. 사람뿐 아니라 말도 그 항구를 통해 드나든다. 따라서 방언의 파도는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섬과 다른 항구로 퍼져나가게 된다. 파도가 파도를 가르며 퍼져 나가는 형국이다.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말을 ‘언어’라 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을 ‘개별 언어’라고 한다. 개별 언어를 이루는 하위의 요소를 방언이라 한다.

이렇듯 바다는 방언의 전파를 막지만 또 다른 방언의 전파 양상을 만든다. 육지에서는 그 공간의 구성이 균질하다면 방언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 나간다. 거리가 멀수록 개신파는 늦게 도달하게 되니 개신지역의 확대와 잔재지역의 감소는 시간에 비례해 나타난다. 개신파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가니 특정한 지역이 빠지는 일은 없다. 산과 강이 가로막혀 있어 균질하지 않은 공간이더라도 더디지만 개신파는 퍼져 나간다.

그러나 바다는 다르다. 바다의 뱃길은 지형, 바람, 조수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만들어진다. 가깝지만 가기 힘든 곳이 있고, 멀지만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필요하다면 멀더라도 자주 가야 하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뱃길이 나니 배를 타고 퍼져 나가는 방언의 파도는 물의 그것과 사뭇 다를 수가 있다. 배가 가지 않으면 방언도 가지 않고, 배가 멀리 가면 방언도 멀리 간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다, 그리고 바다에 의해 형성된 섬과 항구에서의 방언의 전파 양상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언의 전파 면에서 보면 바다는 기본적으로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항구와 항구로 이어지는 뱃길을 통해 방언은 도약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도약한 여러 방언이 특정 지역에서는 융합되기도 한다. 이렇듯 육지에서와는 다른 방언의 전파 양상을 단절, 도약, 융합의 세 가지 관점에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인천과 인천 인근의 섬의 언어를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²⁾ 인천은 개항 이후 거대도시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

2) 이 지역의 언어에 대한 조사는 인천학연구원의 지원 하에 2009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각의 조사와 연구 결과는 <인천 토박이말 연구>,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 연안도서 토박이말 연구>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각 지역의 제보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인천 : 이선진(1915년 인천 문학 출생, 남), 이범기(1932 인천 율미도 출생, 남), 김상봉(1931년 인천 송의동 출생, 남)
- 강화 : 전종대(1928년 강화 교동 출생, 남), 인갑순(1936년 강화 교동 출생, 여), 류진학(1931년 강화 화도 출생, 남), 류호근(1930년 강화 화도 출생, 남), 이영찬(1939년 강화 양사 출생, 남), 황윤욱(1930년 강화 양사 출생, 남)
- 인천 연안도서 : 김삼일(1948년 인천 영종 출생, 남), 김정자(1942년 인천 덕적

그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말이 오고가며 융합이 이루어졌다. 인천에는 154개의 섬이 있고 이 중에 64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다. 이 중에 강화도, 교동도, 덕적도는 언어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인천과 인천의 여러 섬들을 중심으로 언어의 단절, 도약, 융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한다.

II. 섬과 방언의 단절

언어학, 혹은 방언학에서 ‘섬’은 특수한 용법으로 쓰인다. 섬의 특성에 빗대어 만들어진 ‘언어의 섬’ 또는 ‘방언의 섬’이라는 용어가 그것이다(이익섭, 2006). 아주 이질적인 언어가 다른 언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지역을 언어의 섬이라 부른다. 유럽의 언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인도-유럽어라는 큰 어족에 속하는데 그 속에 헝가리어나 핀어는 계통이 전혀 다른 언어여서 언어의 섬을 이루고 있다. 이보다 작게는 루마니아어 사용 지역에 점점이 나타나는 헝가리어, 불가리아 남부에 점점이 나타나는 터키어, 프랑스와 스페인어 사이에 나타나는 바스크어가 역시 언어의 섬을 이루고 있다. 방언적으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어 외지 출신의 취업자가 많은 울산, 포항, 광양 등의 일부 지역이 방언의 섬을 이루고 있다.

섬에서의 방언 단절을 논하기 위해서는 연속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언어의 섬은 이종 언어 간의 완전한 단절을 지시한다. 즉 계통이 서로 다르거나 계통이 같더라도 상호 간에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언어의 섬을 이룬다. 그러나 방언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한국어를 예로 들면 한국어의 하위 방언끼리는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다.³⁾ 따라서 한국어의

출생, 여), 소금순(1938년 황해 해주 출신, 여), 김윤태(1931년 인천 영흥 출생,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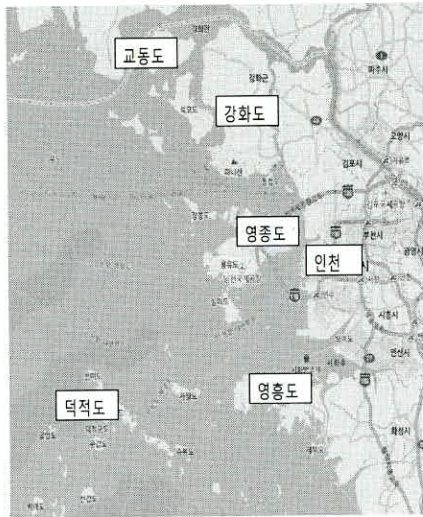
3) 개별 언어와 방언의 경계 및 개념이 모호해지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의사소통력 (mutual intelligibility)’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일반적인 용법에서 언어는 대개 국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학술적인 용법에서는 각 언어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는

방언 간에 완전한 단절이 있을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어의 공통성을 공유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것을 방언 간의 단절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섬 안팎 양방향으로 개신파가 서로 미치지 못해 나타난 차이가 단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대상인 인천과 인천의 여러 섬들은 모두 중부방언의 하위 방언이다. 한국어의 대방언은 중부, 동남, 서남, 동북, 서북, 제주의 여섯으로 나뉜다.⁴⁾ 이 중에 중부방언은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 황해도를 포



한국어의 대방언 구획



인천과 주변 섬의 위치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언어의 방언이라 할 수 있고, 상해어와 북경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라고 보는 것이다. 이익섭(2006), 정승철(2013) 참조.

- 4) 행정구역상 추자도도 제주도에 속해 있으나 추자도의 말은 제주 방언에 속하지 않는다. 추자도는 지리적으로는 전라도와 제주도의 중간에 있지만 여러 면에서 전라도와의 소통이 많은 편이어서 말도 전라도의 말과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 또한 제주도와 추자도가 모두 섬이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두 지역이 모두 물의 일부라던 이렇듯 대방언 구획을 달리 해야 할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기 어렵다. 두 지역 모두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이 나타난 것이다.

괄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나 언어적으로 보나 인천과 인근의 섬들이 중부방언의 한 하위방언이다. 자음이나 모음의 체계, 음운현상, 문법 등 전반을 살펴볼 때 차이보다는 공통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러한 공통성 위에 일부 섬에서 중부방언, 더 좁게는 인근 물의 말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바다에 둘러싸인 방언의 단절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논할 수 있다. 물에서 일어난 개신파가 섬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섬 안쪽 방향으로의 단절이다. 반대로 섬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섬 바깥쪽 방향으로의 단절이다. 섬 안쪽 방향으로의 단절은 방언의 일반적인 전파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육지에서는 자유롭고도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이 바다에 가로막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는 것이다. 섬 바깥쪽 방향으로의 단절은 방언의 전파일 수 있지만 섬 언어의 특징이라 할 수도 있다. 섬의 인구규모나 언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특정 섬이 개신의 진원지가 돼서 언어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신 특정 섬의 자연적 요인과 생활상과 관련되어 발달된 말이 밖으로는 전파되지 않는 양상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언어적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섬 안쪽 방향으로의 개신이 단절된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교동도의 ‘시근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시근치’는 표준어의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중국어 ‘赤根菜 chīgēncài’의 차용어다.⁵⁾ 중국어 발음과 비슷한 ‘시근치’는 어느 순간 2음절의 발음이 바뀌어 ‘시금치’가 되었다.⁶⁾ 2음절 발음의 변화는 황해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

5) 중국어 차용어는 중국어 어휘를 한국 한자음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발음 그대로 차용한 것을 뜻한다. 한국 한자음으로 차용한 것은 음독 차용어라고 하고 중국어 발음대로 차용한 것은 음역 차용어라고 하여 구별한다. 赤根菜를 ‘적근채’로 차용했다면 음독 차용어가 된다. 오늘날의 중국어에서는 시금치를 ‘菠薐 bōcài’라고 하며 ‘赤’의 발음도 ‘chì’여서 ‘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오늘날의 보편화와는 다른 시기나 지역의 발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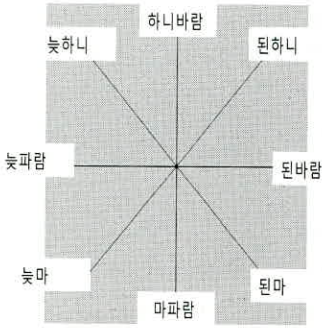
6) ‘시금치’의 방언형 중 2음절의 발음으로 ‘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근초, 시근치’ 둘밖에 없다. 나머지는 ‘시검치, 시금치, 시금채, 시금초, 시금추, 시금티, 시금풀, 시꿈치, 싱금초, 씨금치’ 등 모두 제2음절의 발음으로 ‘ㄹ’을 가지고 있다.

로 보인다. 그런데 교동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여전히 ‘시근치’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변화가 교동도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단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동도가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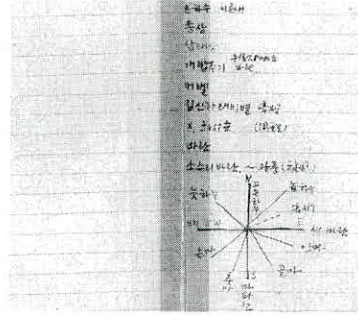
강화도의 ‘송두리’는 더 극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송두리’는 표준어의 ‘바구니’에 해당된다. 사전에서 송두리는 ‘있는 것의 전부’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송두리째’란 말을 제외하면 다른 용법을 찾기는 어렵다. ‘송두리째’란 말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면 ‘송두리’는 흔히 쓰였던 단어로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⁸⁾ 그런데 강화도에서는 ‘송두리’가 바구니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송두리’란 단어가 사라지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변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강화도만은 그 변화의 물결에서 제외된 것이다.

섬 바깥쪽 방향으로의 단절은 섬 지역에 널리 나타나는 바람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섬은 농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삶의 상당부분을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바다 및 어업과 관련된 말이 발달하게 된다. 어업이 발달하려면 배, 어구뿐만 아니라 물, 기후, 날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바람은 이들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세분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경기도의 덕적도와 전라북도의 어청도에서 조사된 바람이름이다.⁹⁾

-
- 7) 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오랫동안 교류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적, 언어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다. 황해도 방언에서도 ‘시근치’는 ‘시근치’인 것을 감안하면 황해도 말의 영향으로 ‘시근치’가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 8) ‘바구니’는 재료, 모양, 용도에 따라 그 이름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송두리’는 오늘날 어떤 방언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 9) 덕적도의 바람 이름은 이승녕(1956)에서 방종현 선생의 조사 자료를 옮긴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어청도의 바람 이름은 이승녕 선생이 1949년에 어청도 방언조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한 노트의 일부이다.



덕적도의 바람 이름



어청도의 바람 이름

육지에서는 동서남북의 방위와 그 사이의 방위에 따라 바람의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각각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육지에서는 바람의 종류나 방향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섬에서의 생활, 특히 어업에서는 방향과 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마, 하니, 된, 늦’ 등은 다른 지역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용법이다. ‘골마, 늦마, 추마’ 등의 복합어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섬 지역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어휘는 다양한 쓰임을 보이고 있는데 육지에서는 이러한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섬의 바깥 방향으로의 단절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람의 이름은 지역마다 다소 다르다. 현재 인천에 속해 있는 덕적도와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 어청도의 바람 이름과 비교를 해보면 이름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분하는 체계도 다를 수 있다. 이는 섬 지역이라도 각 지역의 지형과 바람의 양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인 데서 나타난 차이이다. 섬이기 때문에 바람의 이름을 세분한다는 특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의 섬 사정에 맞는 어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섬 사이에서도 단절의 특성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⁰⁾

10) 바람의 방향과 이름의 차이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늬바람’을 서풍으로 뜻풀이를 해 놓고 북한어에서는 서북쪽이나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부기하고 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는 바람 이름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이자 무의미한 작업이기도

조수와 간만 또한 어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날짜에 따라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다. 덕적도와 어청도의 조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덕적도	어청도
초하루	여섯물, 여섯마, 여섯맛날	일곱매
초이틀	일곱물	여덟매
초사흘	여덟물	아홉매
초나흘	아홉물, 아홉마, 사리, 大潮	열매
초닷새	열물	한개끼
초엿새	두개끼	대개끼
초이레	두개끼, 조금, 小潮	아침조금
초여드레	아침조금	한조금
초아흐레	무시	무수
열흘	한물	한매
열하루	든물	두매
열이틀	시물	세매
열사흘	니물	

육지에서는 한 달 단위의 ‘월력(月曆)’이 중요하지만 섬과 해안에서는 달의 공전에 따라 한 달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달의 인력에 의해 조수가 달라지니 육지와는 달리 이러한 조수의 이름이 세분화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조수 또한 어업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니 자연스럽게 매일매일의 조수에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조수 이름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조수는 달의 인력으로 인한 물리적 현상이므로 비슷한 정도에 있는 지역이라면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적 차이는 다른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섬 지역이 단절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어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인천 연안의 섬에서는 확인이 되나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단절의 예로 볼 수 있다.

하다. 통합된 어휘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물의 사람’들이나 이들은 세세한 바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별 의미도 없다.

풀, 풀등 - 얇은 바닷 속에 있는 모래섬	글바탕 - 바위로 된 해저
감에 - 바닷물이 나간 상태	양참 - 대조(大潮)
농지다 - 고기를 전혀 못 잡다	갬번 - 해변

‘풀, 풀등’은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말이다.¹¹⁾ ‘감에’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흔히 쓰일 법한 말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농지다’ 또한 어업과 관련된 단어여서 이촌 지역에서 널리 쓰일 만 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바다와 관련된 각종 어휘도 바닷가나 섬이 아니면 발달하기 어렵다. 다음의 예들은 다른 이촌지역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형태가 조금씩 다른 바다 관련 어휘들이다. ‘골, 바탕’ 등은 육지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덕적도에서는 바다의 지형에 대한 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덕적도가 뱃길의 요충지이고 주변에 어장이 발달해 있기는 하지만 덕적도 어업에서 안강망 어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안강망을 이용한 어법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인데 덕적도에 이르러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안강망을 이용한 어업이 발달하고 여기에 필요한 배와 어부들이 덕적도에 집결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독특하고도 다양한 어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뺨자, 배입자 - 선주	동사 - 일반 선원
건뺨자 : 가선주로서 항선을 맡은 사람.	화장(火匠) - 주방 선원
작사 - 해변가에 있는 주목	두깃쟁이 - 사공의 봉급
쌈판 - 상구선, 상고선	깃반쟁이 - 영자의 봉급
영자 - 선원 중 최고령자	한깃쟁이 - 동사의 봉급
이자 - 선원 중 두 번째 고령자	

11) 덕적도 인근 외에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도 ‘풀, 풀등’ 등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형과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보고된 곳이 덕적도 인근이다.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풀, 풀등’ 등이 오래전부터 쓰이던 것인지 덕적도 인근의 사례가 알려지고 난 뒤에 쓰이게 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선주를 ‘배 입자’라 하는 것은 고유어로 바꾼 것일 뿐이기에 매우 흔하게 쓰이는데 ‘뱀자’로 줄어든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선주와 뱀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각각을 구별하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줄임말이 쓰이게 되었고 ‘건뱀자’란 복합어로도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작사’ 또한 그 실체는 물론 해당 어휘도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유동인구가 충분하지 않으면 해변에 주막이 차려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덕적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부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주막인 ‘작사’가 차려지고 새로운 이름까지 붙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강망 어선의 선원과 봉급에 대한 여러 용어들은 심마니들의 은어처럼 특정 집단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덕적도가 안강망 어선의 집결지가 되다 보니 이러한 은어가 상대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Ⅲ. 뱃길과 방언의 도약

육지의 길과 바다의 길은 다르다.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처럼 굴곡이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으로는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을 뱃길로는 질러서 바로 갈 수 있다. 황해도에서 육로를 통해 인천에 이르러자 하면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지만 황해도의 한 항구에서 경기도의 덕적도에 가고자 하면 배를 타고 곳곳이 남쪽으로 달리기만 하면 된다. 충청도의 태안에서 인천까지의 육로는 만(灣)을 두 개나 피하거나 가로질러야 하지만¹²⁾ 배를 타면 거칠 것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뱃길을 통한 방언의 전파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지도상의 육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나타나기 어려운 유사성이 보이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육로와는 관계없이 바닷길을 통해 방언이 도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2) 삼교천과 아산만에 방조제가 놓이기 전까지 내포(內浦) 지역에서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두 곳 방조제 위에 찾길이 만들어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잇는 서해대교가 만들어져 오늘날은 육로의 장애물이 없어진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탈 수만 있다면 뱃길이 더 편하고 빨랐다.

바닷길을 통한 도약은 근거리 도약과 원거리 도약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근거리 도약은 말 그대로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지역 간에 이루어진 방언의 도약을 뜻한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인접한 지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라면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방언의 전파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섬과 육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언의 전파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거리상으로는 인접해 있을지라도 뱃길로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방언의 전파는 달리 나타난다. 원거리 도약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사이에 나타나는 방언의 도약을 뜻한다. 육로를 통한 거리는 물론 물리적인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뱃길로 이어진 지역 간에 이루어진 방언의 전파가 곧 원거리 도약이다. 근거리 도약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얽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도약의 특성이 약할 수 있으므로 원거리 도약은 본래적인 의미의 도약이라 할 수 있다.

근거리 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동도와 강화도에 나타나는 황해도 방언의 도약 양상을 들 수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교동도와 강화도는 인천에 속해 있지만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리적으로는 두 섬이 인천과 멀리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강화도는 경기도 김포와 인접해 있고, 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과 인접해 있다. 강화도의 북부는 경기도 개풍군과 인접해 있고 거리상 황해도 연백과도 멀지 않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강화와 교동 모두가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동도와 강화도에서는 경기도 방언과 황해도 방언이 복잡하게 뒤섞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경기도 방언과 황해도 방언이 모두 중부방언에 속하기는 하지만 두 방언 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두 방언의 일반적인 속성을 고려해 보면 교동도와 강화도의 방언은 경기도 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런데 교동도와 강화도 북부의 말에서 황해도 방언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¹⁴⁾ 또한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황해도 방언의 영향이 서로

13) 이는 그 동안의 조사 및 연구에 바탕을 둔 추정이다. 보다 확실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황해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추정은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두 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비교, 대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르다. 교동도에서는 어휘와 음운 면에서 황해도 방언의 특징이 보이는 반면 강화도 북부에서는 어미 면에서 황해도 방언의 특징이 보인다. 인접한 육지인 황해도의 방언이 바다를 넘어 두 섬으로 도약을 하면서 서로 다른 도약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동도에 나타나는 황해도 방언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동사 ‘있-(有)’과 시제선어말어미 ‘-았/였-, -겠-’ 등의 어간말 자음이다. 이 어형들의 어간말 자음은 본래는 경음미가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두 경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어간과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되면 ‘있어, 먹었어, 가겠어’가 [이써, 머져써, 가게써]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있-’은 과거에 ‘이시-/잇-’의 교체체를 보였던 것이고 ‘-았/였-, -겠-’ 등의 시제 선어말어미는 모두 ‘-아 잇-’의 변화 결과임을 확인하면 이전의 말자음은 ‘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말자음이 ‘ㅅ’으로 바뀌는 재구조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교동도에서는 이 경우 여전히 말자음이 ‘ㅅ’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안도 방언 및 황해도 방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방언에 속해 있는 교동도의 방언에 황해도 방언의 특징이 도약해 정착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화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다. 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많은 왕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황해도 방언의 특징이 유입되었지만 강화도는 직접적인 연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이러한 특징이 유입되지 않은 것이다.

강화도의 의문형 종결어미 ‘-시까’는 근거리 도약의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존대의 의문형어미 ‘-시까’는 황해도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어미다. 황해도와 인접해 있더라도 다른 방언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경기도와 인접한 황해도 남부의 금천과 연백에서도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충구 2003). 그런데 강화도, 특히 강화도

14) 교동도의 말에서는 평안도 방언의 어휘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드렇게(어떻게)’…… 등에서 이러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적인 특징은 평안도와 교동도의 뱃길을 통한 교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황해도를 거쳐 전파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북부에서 이러한 어미가 매우 활발하게 쓰인다.¹⁵⁾ 이 어미가 황해도 방언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화도에서 이러한 어미가 쓰이는 것은 황해도 방언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화도가 경기도에 더 가깝지만 북쪽 바다를 통해서 황해도 방언이 도약해 온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교동도에서는 이러한 어미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리상으로는 교동도가 황해도에 더 가깝다. 그리고 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과의 교류 과정에서 황해도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교동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연백은 경기도 방언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어미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동도는 강화도와 달리 이 어미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존경의 의문형 어미 ‘-시까’는 교동도를 건너 뛴 채 강화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어말어미의 어간말 자음 ‘ㅅ’이 교동도에서는 나타나지만 강화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존경의 의문형 어미 ‘-시까’가 강화도에서는 나타나지만 교동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근거리 도약의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원거리 도약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동사 ‘오-(來)’의 활용형을 들 수 있다.¹⁶⁾ 동사 ‘오-(來)’는 ‘오- + -아’의 활용 시 ‘와’가 되더라도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활용형은 일반적으로 ‘와, 와서, 와라, 와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을 막론하고 기저형은 ‘오-’임을 알 수 있다. 명령형은 ‘와라’도 쓰이지만 ‘오너라’도 쓰인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활용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충남 서해안 지역의 서산, 태안과 강화군 교동도에서는 ‘오너/오느, 오너서/오느서, 오너라, 오너도, 오고, 오면’와 같은 활용양상이 나타난다.¹⁷⁾ 이러한 활용형이 어떻

15) 존대의 의문형 어미이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 젊은 세대들은 잘 쓰지 않는다. 물론 표준어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16) 이휘 면에서는 원거리 도약의 사례만이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바다가 사이에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섬과 항구는 인접한 방언과 동일한 방언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휘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언어적 공통성이 근거리 도약의 사례가 될 수 있다.

17) ‘오너/오느, 오너서/오느서, 오너라, 오너도’와 같은 활용형은 ‘오너라’와 같은 불규칙한 활용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충남 서해안 및 교동도의 공식적인 요소만 고려한다면 기저형은 ‘오-/오느-’ 복수 기저형을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

게 나타났는가도 문제가 되지만 멀리 떨어진 이 두 지역에서 이러한 활용양상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가도 문제가 된다.

충남 서해안 지역과 교동도가 모두 서해와 닿아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다는 점에서 이렇듯 같은 활용 양상이 나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두 지역의 사이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활용형이 나타나다면 일반적인 방언의 전파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지역 사이의 섬이나 육지 모두에서 이러한 활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이러한 방언의 전파가 물에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 지역으로 도약한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충남 서해안과 교동도가 물의 거리로 보면 멀지만 뱃길로 보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⁸⁾

IV. 항구와 방언의 융합

방언의 접촉과 교류는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다. 크고 작은 단위의 방언 간에는 경계가 있게 마련이고 이 경계에서는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방언 간에 접촉이 일어나는 곳을 전이지대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수용, 혼용, 혼효, 대체 등이 일어난다(정승철 2013). 이러한 양상은 크게 볼 때 방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전이지대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국어 전체로 보면 개별 방언이 한국어로 융합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융합은 방언의 특성, 그리고 방언과 개별 언어 간의 관계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히 일부지만 이러한 활용형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표준어에서도 ‘오너라’와 같이 불규칙한 활용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기원적으로 *‘오느’였다가 ‘오-’로 재구조화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문헌상의 증거나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18) 이 문제 역시 교립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오-’로의 재구조화가 충남 서해안 및 교동도까지는 확장되지 않아 두 지역이 잔재지역으로 남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언의 전파 방향으로 볼 때 두 지역만이 잔재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도약에 의한 공통성 공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융합과는 다른 융합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을 통한 방언의 융합은 부분적이며 예측 가능한 것이다. 경계 간의 접촉이 전제가 되어야 하니 융합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인접한 방언 간에 혼용, 혼효, 대체 등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경계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방언 간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융합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며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난다.

경계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언이 융합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언어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언어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다. 신대륙에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거나 개척이 되지 않은 땅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피진이나 크레올의 단계를 거쳐 언어가 정착이 될 것이고, 같은 언어의 서로 다른 하위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코이네 단계를 거쳐 언어가 정착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대규모 주거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철도가 발달하는 과정에 새로운 교통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 인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지역의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을 들 수 있는데 1905년에 경부선 대전역과 호남선 서대전역이 개통되면서 교통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항구가 열리고 그 항구를 통해 많은 인력과 물자가 오가게 되는 것도 언어 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그마한 바닷가 어촌마을이 개항 이후 인구 순위 3위의 대도시로 발전한 인천을 들 수 있다.

철도와 항구의 발달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에서의 언어 융합은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철도와 항구를 통해 발달한 도시여도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방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규모 도시 건설 초기에는 원주민 및 인접 지역의 주민들이 집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의 유입이 확대되더라도 인접 지역과의 언어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도시가 속한 지역의 방언권의 방언과 유사한 언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먼 지역에서 온 화자의 방언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면서 인접지역 및 해당 도시가 속한 방언권과는 다른 언어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항구의 발달로 이루어진 언어의 융합은 철도에 의한 것보다 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철도는 육지에 ‘눈에 보이는 경로’로 이어지는 데 비해 뱃길은 바다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로’로 이어진다. 육지의 철도를 통한 이동은 일반적인 개신파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이동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바다를 통한 이동은 뱃길의 특이성으로 인해 점진적인 이동이 아닌 도약의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항구로 인해 건설된 도시의 방언은 철도로 인해 건설된 도시의 방언에 비해 이질적인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¹⁹⁾ 이러한 특성은 개항과 한국전쟁을 통해 발달한 인천과 안강망 어업의 발달로 형성된 덕적도의 말을 통해서 잘 확인된다.

인천의 말은 ‘다양한 요소가 혼재된 말’ 또는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 말’로 요약된다.²⁰⁾ 한성우(2009)의 조사지점인 문학동, 월미도, 송의동을 포괄하는 지역 범위는 일반적인 군 단위보다도 좁은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군 단위의 토박이 제보자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그런데 한성우(2009)의 제보자들은 모두 인천 토박이들인데 세 제보자의 음운체계가 모두 달랐고, 음운현상, 문법, 어휘 등에서도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인천의 말이 단일한 언어배경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인천 말의 이러한 특징은 거대도시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인천과 거리상으로 가까운 더 큰 도시인 서울의 토박이말에서는 전형적인 서울말의 특징이 나타난다. 서울 내의 거주지역과 계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명확한 특징이 관찰된다.²¹⁾ 규모가

19) 대전의 말은 기본적으로는 충남방언을 기층으로 해서 성립되었다. 여기에 인접한 전라북도의 말과 충청북도의 말이 부분적으로 융합되어 성립되었다. 인천의 말도 기본적으로는 경기방언을 기층으로 해서 성립되었다. 그런데 다소 멀리 떨어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말의 요소도 함께 융합되어 형성되었다. 항구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도시의 말이 훨씬 더 광범위한 융합을 이루는 것이다.

20) 이는 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인천의 토박이 화자 세 명을 조사하고 분석한 한성우(2009)의 결론이기도 하다. 한성우(2009)는 인천 도호부가 있던 문학동의 제보자 이선진(1915년생), 포구가 있던 지역인 월미도의 제보자 이범기(1932년생), 인천 구도십인 송의동의 제보자 김상봉(1931년생)을 조사하여 음운, 문법, 어휘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21) 이는 서울의 토박이 화자 이흠 명을 조사하고 분석한 국립국어원(1997)을 통해 얻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출신의 주민으로 구성된 서울의 말은 전형적인 특징이 관찰되는 데 비해 인천의 말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지역만으로 보면 군 단위보다 작은 범위 내에 살고 있는 토박이 제보자에게서 전형적인 언어적 특성을 발할 수도 없고, 공통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양상의 이유는 결국 인천 말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이 오늘날과 같은 대도시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개항 이전에는 정체성이 분명한 지역이 아니었다. 제물포는 조그만 항구에 불과했고 오늘날의 문학동 지역에 도호부가 있었으나 오늘날 인천의 구로 편입된 부평보다 규모나 위세 면에서 작았다. 인천의 구도심 지역은 개항 이후에 개발된 지역으로서 인근 및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로 채워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인천 말이 형성되기 어려웠다.²²⁾ 이 상태에서 개항 이후 거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지의 언어가 융합되면서 인천 말만의 특징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인천으로의 외지인 유입은 항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오늘날 인천 주민 중 1/3 이상이 충청남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유입은 육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주로 뱃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충남과 인천을 잇는 뱃길을 통해 충남의 주민들이 인천항으로 대거 유입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북한 지역 주민의 유입 또한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황해도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뱃길을 통해 인천으로 유입되었다. 이렇듯 본래의 언어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지역의 주민이 항구를 통해 유입되면서 인천 말은 다양한 지역의 말이 융합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개항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도시가 항구를 통해 인구를 불러들여서 다양한 언어가 융합되어 혼재된 말, 또는 특징이 없는 말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²³⁾

은 결론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 조사원이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22) 이 점이 규모 면에서 유사한 서울과 인천이 비교되는 점이다. 서울은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언어 면에서도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전의 인천은 그러한 세를 형성하지 못했다.

23) 인천 말의 전형적인 특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언에 대한 인상이 그렇듯

덕적도는 인천과는 또 다른 언어의 융합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항구를 통한 융합이라기 보다는 어장을 통한 융합이다. 인천은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항구와 배후 도시가 성장했지만 덕적도는 인근의 민어와 조기잡이 어장 때문에 크게 성장했다. 커다란 어장과 함께 파시도 형성이 되어 전국 각지의 배와 상인들이 덕적도에 모여들게 되었다.²⁴⁾ 섬 지역은 주민의 거주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언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 덕적도 또한 마찬가지로 분명한 방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언어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언어의 융합 현상은 다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어휘들은 덕적도에 나타난 언어의 융합현상을 잘 보여준다.

바대 - 바다(海)
 니알 - 내일(來日)
 너물 - 나물
 조구 - 조기
 민에 - 민어

농에 - 농어
 가남쇠 - 나침반
 했으라우 - 했어요
 했간디? - 했나?

위의 예들은 충청도와 전라도 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바대, 니알’ 등은 주로 충청도와 전라도의 서해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너물’은 아래아(·)가 ‘ㄱ’로 바뀐 사례로서 역시 충청도와 전라도의 서해안

인천 말 특유의 말투가 감지되기는 한다. 서울 상류층의 토박이말에 비하면 다소 가볍고 장난스러운 말투, 그래서 서울 중류층 토박이말과 공통성이 더 느껴지는 말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억양과 말의 빠르기 등의 운율적인 요소를 통한 인상이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선어말어미 ‘-겠’ 대신 ‘-갓’이 쓰이는 것도 인천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충청 방언에서는 ‘-갓’이 쓰이고 경기 북부에서는 ‘-겠’이 쓰이는 것과 대비된다. ‘-갓’은 평안 방언 및 황해 방언에 나타나는 ‘-갓’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래부터 인천 지역에서 쓰이던 것인지 개항 이후 북부 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쓰이게 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4) 안강망 어업의 전성기인 1960년대의 덕적도에는 해상의 자연파시와 해변의 임시 파시가 들어섰고, 야외극장과 약방, 다방, 공중목욕탕, 요릿집, 사진과 등이 성업 중이었다. 해방무렵에는 덕적도 북리항의 유동인구가 약 2만 명에 달했다(이세기 2015).

에서 많이 나타난다. 물고기 이름은 전라도 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조구, 민에, 농에’ 등은 모두 전라도 해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들이다. ‘가남쇠’는 표준어의 ‘가늌하다’의 전라도 방언형이 ‘가남하다’가 포함된 단어다.

이러한 어휘보다 몇몇 어미는 더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으라우, -간다’ 등은 주로 전라도에서 쓰이고 충청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어미다. 그런데 덕적도에서도 이러한 어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어미가 이른 시기에 입도한 주민의 말에서 유래한 것인지 최근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말에서 유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덕적도 말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도 및 전라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휘와 어미가 덕적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은 덕적도가 남쪽의 여러 지역과 뱃길로 잘 통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어휘들도 주로 남부방언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덕적도에서도 확인된다.

뉘질, 뉘, 놀 - 파도의 머리

두지 -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오는 날씨

하단 - 상여(喪輿)

홀목 - 손목

그런데 이 어휘들은 남해나 제주도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뉘’는 전남 강진과 여수에서 확인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인 ‘뉘이’는 경남 남해에서 확인된다. 또한 ‘놀’은 고시조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두지’ 또한 오늘날에는 제주도에서만 쓰이고 있고 이와 비슷한 형태인 ‘지지’는 전남 고흥에서 쓰이고 있다. 상여를 뜻하는 ‘하단’은 제주도에서 ‘화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홀목’은 제주도에서만 쓰이고 있다.²⁵⁾ 이처럼 먼 지역에서 쓰이는 어휘가 덕적도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방언의 전파로 보기 어렵다. 설사 뱃길을 통한 전파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먼 지역과의 교

25) 방언형의 지역별 비교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한민족 언어정보화 사업 결과물인 방언형 검색을 통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홀목’이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도 ‘홀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가 일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뱃길을 통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는 결국 덕적도에 집결해 있던 안강망 어선과 그 배의 어부들을 통해서 전해져 남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덕적도 인근의 굴업도에 제주도 해녀들까지 와서 물질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말이 먼 거리를 도약해 덕적도의 말에 나타나는 것은 덕적도의 말이 얼마나 넓은 범위의 말들이 융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덕적도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방언 융합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당시에 황해도 지역의 어민 중 일부는 배를 타고 남하를 했는데 황해도에서 정남쪽으로 남하하다보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이 덕적도다. 더욱이 덕적도 인근에 큰 어장이 발달돼 있어 남하한 어민들이 생업을 이어가기에도 적합하다. 이런 이유로 황해도 주민의 상당수가 덕적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덕적도 주민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해도 방언은 중부방언의 한 하위방언이고 덕적도의 말 또한 중부방언의 일부이다. 따라서 남하한 황해도 주민의 말은 기존의 덕적도 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러나 덕적도에 거주하고 있는 남하 1세대들은 본래 그들의 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²⁶⁾ 방언 전파와 접촉의 일반적인 양상을 고려할 때 황해도의 말과 덕적도의 말이 교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지역은 거리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육로로는 교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구와 항구를 잇는 뱃길이 있었기에 이러한 융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26) 덕적도 말에 녹아들어난 황해도 방언의 자취를 찾기 위해서는 황해도 방언의 특징이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황해도 방언의 자료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다만 황해도 출신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두 지역 간의 언어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2013년의 현지조사에서는 황해도 해주, 황주 출신의 두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해주 출신의 제보자의 말은 덕적도의 말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고 제보자 스스로도 별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평안도에 인접해 있는 황주 출신의 제보자는 ‘ㅈ’ 계열을 치조 위치에서 발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적인 특성도 평안도 방언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황해도 출신 대부분이 황해도 해안 출신이어서 이들의 말과 덕적도의 말의 언어적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이상에서 덕적도의 말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어휘와 표현, 그리고 먼 지역의 말들이 도약을 거쳐 융합된 예들을 보였지만 이것이 덕적도 말의 본령은 아니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덕적도의 말은 중부 지역의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중부 방언의 특징들을 공유하면서도 이 지역의 차별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고무래 - 당그래
 쇠스랑 - 소시랑
 호미 - 호무
 까끄라기 - 까락
 머슴 - 머섭
 메밀 - 메물
 무말랭이 - 무:오가리
 푸성귀 - 푸성기
 가래떡 - 갈래떡
 빛다 - 비진다
 새알심 - 동굴레
 가장자리 - 가생이

대들보 - 대질보
 용마름 - 곱새
 낙숫물 - 국구수락
 뒤꼍 - 뒷두란
 두레박 - 디레박
 먹동구미 - 맥구리
 구레나룻 - 구룻날
 휘파람 - 헤파람
 목물 - 등떡
 회초리 - 회초루
 그리마 - 섬셈이
 쇠비름 - 세비듬

결국 덕적도의 말은 이른 시기에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의 말, 어업과 그에 따른 파생 산업 때문에 덕적도를 거쳐 갔거나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융합되어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융합은 뱃길을 서로 이어주는 항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V. 나오는 말

섬과 항구는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바다가 있어야 섬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항구가 있다. 방언은 바다와는 상극의 관계이다. 방언의 확산이 파도에 비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 파도는 육지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바다에도 길이 생기고 그 길은 항구와 항구를 이어주고 방언도 이 바닷길을 따라 항구를 통해 전해진다. 비록 육지에서의 방

언의 전파와 다른 양상을 띠기는 하지만 바다에서도 방언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다를 사이에 둔 방언의 복잡한 전파 양상은 단절, 도약, 융합으로 특징지어진다. 인천과 인천을 둘러싼 바다, 그리고 그 위의 섬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언의 단절, 도약, 융합의 여러 양상이 관찰된다.

모든 섬들의 방언은 기본적으로는 연속과 단절의 양상을 모두 보인다. 아무리 섬일지라도 그 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방언이 있게 마련이고, 그 방언은 인근의 육지의 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통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언어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단절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은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를 막론하고 바다를 넘어 방언이 전달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도약이다. 그리고 이렇게 도약된 방언은 본래의 말과 융합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바다로 인한 전통적인 의미의 단절, 도약, 융합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다가 매워져 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섬과 육지, 그리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파와 인터넷망은 바다를 자유롭게 건너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융합의 양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말은 살아 있는 것이니 그 모습은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떠나감에 따라 섬과 각 지역의 말은 바뀌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역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말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이전에 흔히 쓰이던 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표준어와 다른 지역의 말 때문에 말이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백년 뒤, 혹은 오십 년 뒤의 말은 지금의 말과 사뭇 다를지도 모르고 어쩌면 표준말과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바다로 둘러싸이거나 이어진 섬과 항구의 말이기 때문이다. 연속의 양상이 강화가 될지라도 도약과 융합은 새로운 양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충구(1997), 중부 방언의 특징과 성격, 한국어문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곽충구(2003), 황해도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김봉국(2003), 중부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박기영(2003), 경기도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방언연구회(2003), 방언학 사전, 태학사.
이병근·박경래(1988), 경기도방언의 연구와 특징, 국어생활 12, 국어연구소.
이병근·박경래(1992), 경기방언에 대하여,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이병근·정승철(1989), 경기·충청지역의 방언분화, 국어국문학 102.
이세기(2015), 흔들리는 생명의 땅 섬, 한겨레 출판.
이승녕(1956), 덕적도 방언, 조선일보 1956년 9월 6일, 7일자, 심약 이승녕 전집 11(심약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 2011, 한국학술정보)에 재수록.
이승녕(1957), 서해도서 조사보고서, 을유문화사, 심약 이승녕 전집 11(심약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 2011, 한국학술정보)에 재수록.
이익섭(2006), 방언학, 민음사.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최명옥(2015), 한국의 방언, 세창출판사.
한성우(2003), 충청도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한성우(2009), 인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한성우(2011),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한성우(2013), 방언정답, 어크로스.
한성우(2014), 인천 연안도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Abstract

Sea, Islands, Harbor and Dialect

Han, Sung-Woo*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severance, jump and convergence of dialect that appear in Incheon and neighboring islands. Incheon is a megalopolis which is developed after the opening of a port and Incheon had made intimat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islands; Ganghwa, Gyodong, Deokjeok. The dialect of this region belongs to the Central dialects and linguistically also share features of the central dialect. Because this city and islands are well connected by seaway, each dialectal factors are actively mixed. However, they are blocked by sea, each region has there own characteristic dialects. This characteristic dialects are regarded as the unique dialectal features or the result of severance by sea. Although this region is intercepted, many dialectal features jump over each region along with seaway between harbors. And the dialectal features are converged with the original language. Sea is not only the obstruction of dialectal spread but also the new way of dialectal defusion.

Key Word : dialect, sea, island, harbor, severance, jump, convergenc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교신 : **한성우**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E-mail: drysoul@naver.com)

논문투고일 2016. 01. 05.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